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다른나라로 가서 선교한다고 큰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고아원을, 양로원을 아니면 교도소 등을 찾아가서 사랑못받는 그들을 가만히 사랑으로, 성령으로 안아주는 것이 큰일이 될수 있습니다. 고아들은 먹을것과 입을것과 놀것은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없는 것은 따뜻하게 안아줄수있는, 또 함께 대화를 해 줄수있는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과 과부들을 안 돌아본다는 것은 곧 주님께 하지 않은것 입니다. 나중에 심판때에는 이 사랑을 행한것으로 양취급이되고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염소취급받아서 지옥에 가게되니(마태복음 25:33-46) 꼭 명심하시고 작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쇠약하신분들은 고아들과 과부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헌금을 하셔도 되고 돈도 없으시다면 그들을위해서 열심히 매일 중보기도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할수있는 분야에서는 서슴치말고 도와주셔서 하늘에 놀라운 상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68:5)

나에게 그럴 능력과 힘이 없으신 분들은 중보기도자들이 되셔도 됩니다. 매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을 붙잡아주시며 기도해주시고, 또 믿는자들이 천국가게끔 중보기도해주시고, 감옥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구나, 노인들과 불쌍한 자들의 평온과 우리모두가 죄를 떠나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시는 사역을 하셔도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매일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